

전남개발공사, 기술사 배출...전문성·기술행정 역량 강화

김광호 실장 '토목시공'·김성중 과장 '건축시공'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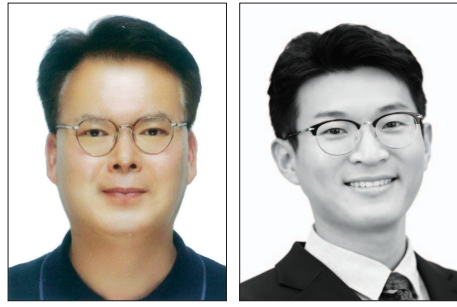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 소속 균형개발사업실 김광호 실장과 주거복지사업실 김성중 과장이 각각 토목시공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광호 실장은 전남도청 소속 5급 시설직 공무원으로 현재 전남개발공사에 파견돼 도내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김 실장이 취득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은 매년 약 3000명이 응시해 150명 정도만이 합격하는 국가 최고 등급의 기술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1992년 2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보성·화순·영암군과 전남도청 주요부서에서 근무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에 파견돼 무안 오룡지구와 여수 죽림지구 택지 개발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김성중 과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책임지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해 수험에 매진했으며, 꾸준한 노력이 실무경험과 체계



김광호



김성중

적인 이론을 결합하는 기반이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기술기반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술사 취득은 단순한 개인적 성과를 넘어 공사의 업무 역량과 기술행정 체계 강화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실무자 역량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행정과 현장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해 전남도의 균형발전 전략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광호 실장은 “기술사 합격까지 도움을 준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1년 3개월여 남은 공직생활 기간 토목시공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고법-변호사회, 법정문화 발전 ‘맞손’

간담회 개최...재판 관련 상호 요청사항 등 교환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변호사회는 8일 ‘2025년 법정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법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고법 소속 법관 13명과 광주변호사 상근임원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부터 정례화되고 있는 상반기 법정문화발전협의회 회의의사를 중간 결산했다. 상반기 법정문화발전협의회 회의사항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의 정착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범위 △민사 사건 선고기일 지정 관련 변호사회의 의견 청취 △소년사건 기일 통지 관련 의견 교환 등이었다.

이후 광주고법과 광주변호회는 재판 진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 문화 형성을 위한 양측 요청사항을 교환한 뒤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변호회는 의명화가 과도해 식별이 어려운 ‘나의 사건조회 시스템’ 개선과 형사사건 피해자 기록 열람·복사권 적극적 보장,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인적정보 제공, △항소심 민사사건에서 증인 신청 허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법원 측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실시로 40일 이내 항소이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각하할 수밖에 없는 점을 당부했다.

설법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품위 있고 절제된 법정 운영이야말로 재판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면서 “매일 변호사로서 재판 진행을 직접 마주하면서 느끼는 소회와 애로사항, 합리적인 개선책을 가감 없이 전해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법변호사회장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심탄화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매월 정례화해줘 감사하다”며 “법원과 변호사회가 손을 맞잡고 광주지역 법정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6·25 참전 영웅,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수훈

함평군, 이두형 상사에 헌신 경의

함평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용사의 공로를 기리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호의 가치를 되새겼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영웅 이두형 상사(97)가 최근 학교면 학나래문화센터에서 열린 무공수훈장장 전수식에서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훈장 전수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군 관계자, 유공 가족 등 70여명이 함께해 수훈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공수훈장은 전투 중 현저한 무공을 세운 군인 등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전수식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본인 또는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뒤늦은 훈장 전수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두형 상사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은성화랑무공훈장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으며, 이후 1954년부터 1958년까지는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현재는 학교면에 거주 중이다.

이상의 군수는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영웅들의 술회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호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권 기자 6263739@gwangnam.co.kr

노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접근성 개선

전남도, 순천서 운동처방 서비스 현장 실풓

전남도는 8일 순천 서면 대구1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대구1 경로당에서 2개 반 24명이 참여하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회당 60분씩 1년간 진행한다. 참여자는 월 9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8만1000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원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반영해 지자체가 직접 기획·발굴·운영하는 자율적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다. 전



남도는 27개 사업을 추진. 매년 2만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 1300여명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오지마을 등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도민도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어르신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와 활기찬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년사회화교육사업 하반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노년사회화교육사업은 한문, 문인화, 실버체조, 사교댄스, 라인댄스 등 45개 평생교육,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높이고, 자기계발 및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및 컴퓨터 기초와 심화 과정 총 5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



용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노년사회화교육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서구 내 어르신들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수강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

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숙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몰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안태복씨 별세. 안정진(대상주식회사 중국 상해사무소 대표)·소운·재운 씨 부친상. 강동일(KBC광주방송 서부방송센터 취재부장)씨 장인상=8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국민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62-606-4000.

운세 (음력 7월 18일)

48년생 배우자에게 곤궁할 수 있다
60년생 출직하면 사랑에 문이 열린다
72년생 직장에서 금전이 생긴다
84년생 결혼한 태도는 인정 못 받는다
96년생 금전 지출은 많고 수입 적다

51년생 무리한 음주는 병의 원인이 된다
63년생 쓸데없는 설계하니 물만 버린다
75년생 말로 꼬이더라도 위치를 지켜라
87년생 인간관계로 인해 득실이 없는 날
99년생 새로운 것을 모색하면 어려워진다

54년생 중대한 약속이 취소 된다
66년생 사랑과 믿음이 부족해지는 날
78년생 배신당하는 운이니 감언이설 주의
90년생 필요없이 머리를 쓰면 망신수

57년생 겉은 좋지만 실속 없고 바쁜 날
69년생 이성하고 즐거운 데이트 하는 날
81년생 지인과 마찰 빚지 않도록 주의할 때
93년생 결정한 것에 후회 한다

49년생 애정사람 일에 눈매 감아라
61년생 문서로 인한 고통은 내가 자초한다
73년생 금전은 흥동하니 걱정하지 말라
85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낙이 오는 날
97년생 일이 이뤄지고 이익이 따른다

52년생 융통성 갖고 슬기롭게 대처 잘하라
64년생 안기 쉬운 것은 일기도 쉽다
76년생 배우자한테 미움 받을 우려 있다
88년생 애정사람의 허극상을 조심하라

55년생 부동산으로 심신이 피곤하다
67년생 참신한 아이디어 창조할 때
79년생 자녀로 손재수가 열려되는 날
91년생 참신한 아이디어 창조하는 날

58년생 망설임이 많으니 기회를 엿볼 때
70년생 직원이 협력자로 변해 기쁨이 있다
82년생 직장 내에서 존경을 한몸에 받는 날
94년생 이성과 여행하면 망신수가 있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과거에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하라
62년생 지인 덕에 일이 진행된다
74년생 이성과 여행이 성사 될 것
86년생 재물이 보이나 소용할 수는 없다
98년생 지난번 보다는 수월해질 것이다

53년생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도모할 때
65년생 귀인을 만나다 좋은 일기가 있다
77년생 능력을 인정받으니 상쾌한 날
89년생 근근 절약하여 무리 없도록 할때

56년생 처다만 보지 말고 내려보기도 하라
68년생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80년생 험한 파도 넘어 목저지에 도착할 때
92년생 친구에게 배우는 것은 손해다

59년생 문서에 걸려 나아갈수 없다
71년생 금전문제는 계획을 세울 것
83년생 문서로 인해 금전 나간다
95년생 친구로 인해 재물이 불겠다